

미래형 교육 강화... 전북대, 조직개편 단행

9처 1국 1본부 9과 10부 3실로 변경... 글로벌30 사업 본 지정에 큰 동력 기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7처 1국 9과 8부 2실 2단이던 조직을 9처 1국 1본부 9과 10부 3실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혁신 전략을 뒷받침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를 통해 전북대의 글로벌대학 30사업 본 지정에도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학생 중심 대학의 실현을 위해 대외협력부총장을 대외·취업부총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취업진로처 신설을 통해 학생 취업지원을 강화했다.

취업진로처에서는 단순한 취업지원 뿐 아니라 빅데이터에 기반한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전북대학교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사진은 전북대학교 전경.

경력을 관리하는 등 학생 지원의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시를 집속한 대학교육의 혁신전략 수립을 위해 혁신교육개발원을 교육혁신처로, 정보전산원을 정

보혁신처로 각각 명칭을 바꿔 본부로 승격시켰다.

또한 혁신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교육부를 대학원혁신 본부로 새 단장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운 캠퍼스 조성과 관리를 위해 기존 기획처 공간팀을 캠퍼스디자인실로 승격·신설했다.

특히 대학교육의 혁신을 위해 교무과 산하에 RIS 대학교육 혁신본부와, 연구진흥부 산하에 RIS미래수송기기사업을 설치해 교육 인프라의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연구윤리감사실을 연구부정뿐 아니라 대학 전반의 부정부패를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대폭 강화했고, 사무국 하부조직으로 안전보건관리부도 신설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및 대학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했다.

양오봉 총장은 "학생이 오고 싶고 다니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지친 몸·마음 회복 서로간 위로·격려

도교육청, 순창실랜에서 교사 90여명 대상 치유·힐링 프로그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4일과 11일 두차례에 걸쳐 순창실랜에서 교사 90명을 대상으로 교사 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활동 침해 및 피해 경험 겪는 교사들에게 치유와 교육력 회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서로를 위로·격려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일정은 △마음 건강을 위한 자가 치유 프로그램(아로마테라피) △의사소통 방법 및 감정조절 프로그램(원예테라피) △힐링 아로마 요가 등이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 직무대리는 "교사 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 스스로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치유하면서 교육력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서 교육감 "새만금 챔버리 안정적 운영 적극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챔버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5일 오전 새만금 챔버리장을 방문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남은 기간 새만금 챔버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대원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도울 수 있는 일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벌레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챔버리에서 참가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서 교육감을 비롯해 박주용 부교육감 등 도교육청 간부진들이 함께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각 부서별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새만금 챔버리 참가자들을 위해 냉방용품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예비비를 편성,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냉각티올과 냉각스프레이 각각 3만개를 구입하고, 이날 오후 챔버리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교육청은 새만금 챔버리 참가자들을 위해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냉각티올과 냉각스프레이 각각 3만개를 구입하고, 지난 5일 오후 챔버리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 구성

오늘부터 본격 활동... 앞서 선화학교 교원들과 간담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를 구성, 오는 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협의체는 특수학교 관리자, 현장 특수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 특수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숙 교육국장은 특수학교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27일 전주선화학교 교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특수교사들은 "장애 학생들의 부적응행동, 돌발행동, 과격한 행동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학교 교사는 일반학교 교사보다 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각

종 민원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장애 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이 신체·정신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현장 특수교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학교 내 저화질 CCTV 교체 추진

도교육청, 하반기 370대 지원... 2025년까지 완료 목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 내 저화질 CCTV(200만 화소 미만)를 고화질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무단침입·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을 보호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총 1만4,473대로, 이중 200만 화소 미만의 노후 CCTV는 1,741대로 파악됐다.

이에 하반기 중에 고등학교 21개교에 대해 노후 CCTV 370대 교체비용으로 3억2,000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교체를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CCTV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함께 고려돼야 하는 만큼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지침'에 따른 학교 구성원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더불어, 최근 변경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3조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성능 품질 인증제품을 설치하도록 안내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체협 중심 안전교육 강화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생수련원, 지리산서 가족수련캠프

전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원장 정찬)은 지난 1~4일 1박 2일씩 27에 걸쳐 가족 수련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족 수련캠프는 고즈넉한 숲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지리산 자락에서 도내 초·중·고교 학생 가족 200여 명이 모여 신나고 오싹한 모험활동, 숲 산책, 레크리에이션 별마루 여행, 컬러테라피 등을 체험했다.

특히, 4일 오후 진행된 '세길산 인문·예술 힐링 콘서트'는 참가자들의 인문학적 소양 및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고, 마음수련·치유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또 국내 유명 성악가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 시낭송가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명인들이 멋진 무대를 선보이며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